

 <b>보건복지부</b>		<h1>보도 설명 자료</h1>		
<b>배 포 일</b>		2019. 5. 29. / (총 2매)		
예비급여과	<b>과 장</b>	손 영 래	전 화	044-202-2670
	담당자	김 정 숙		044-202-2661

**5.30일자 한국경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방안 보도 관련하여 추가 설명드립니다.**

(5.30일자 한국경제, ‘문턱 낮아진 MRI·CT ... 동네의원 갈 환자도 종합병원서 의료쇼핑’ 보도 관련)

**설명 내용**

○ 2018년 건강보험 주요통계(건강보험공단)의 결과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 드립니다.

① 대형병원 건강보험 진료비 증가 관련

- 정부는 중증환자에서 보험 적용이 되지 않아 고액의료를 유발하는 필수적 의료\*를 중심으로 급여 전환 등 보장성 강화를 추진 중입니다.

\* 선택진료비, 간초음파, 뇌MRI, 2·3인실, 신생아·임출산 질환 치료 등

- 보장성 강화에 따른 건강보험 진료비 증가는 국민이 전액 부담해야 했던 비급여 의료비 부담을 건강보험이 흡수하여 포함된 결과이며,

- 이에 따라 중증환자를 전담하는 대형병원의 건강보험 진료비가 증가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습니다.

② 건강보험 재정관리 관련

- 다양한 필수의료의 보장성 강화에도 불구하고, 2018년 건강보험 당기재정수지는 1,778억 원 규모의 적자, 누적수지 20.6조 원 적립금을 확보하고 있어 당초 재정계획 범위 내에서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.

○ 정부는 앞으로도 필수 의료 중심으로 보장성 강화를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,

- 의료 과남용, 대형병원 쏠림 등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고 당초 계획한 범위 내에서 효율적으로 보험 재정이 운영되도록 관리할 계획입니다.